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보도

[보도자료]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약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작성일 2015.12.18 작성자 대변인 Views 2733

Attachment파일 다운로드 소요문화제.jpg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약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약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 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 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약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약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약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약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顺延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약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약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
수도권 대회



노동계약 저지
백남기 농민 래유 기원

소요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소요(騷擾) [명사]
여럿이 떠들썩하게 들고일어남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

문화제 후 대학로로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집니다

복면금지법에는 가면시위로! 소요죄 협박에는 소요로!



소란 소란스러운 물건을 가져오세요
호루라기, 부부젤라, 악기, 풍물, 응원도구 등



요란 요란한 모습으로 모여주세요
가면, 개인피켓, 페이스페인팅, 특이한 복장 등

주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List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